

도로·주변 여건 감안없이 고층 건축물 우후죽순

골목길 20층짜리 잇따라...주차난 등 주민 피해 발생
광주시, 조만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정 고시안 마련

좁은 이면도로에 들어서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道路斜線制限)’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폐지된 뒤 상업 지역 내 골목길에 20층을 넘어서는 건축물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과 교통 지체 등을 초래해 주민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광주시도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광주

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지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의회 설명,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도로 폭만이 아니라 대지(地)의 특징과 주변 건축물 형태 등을 참조해 결정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따라 높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다른 별도의 조치 없이 도로사선제한만 건축법에서 삭제하면서 4년여간 광주 동구 구도심, 북구 첨단지구 등의 상업지역에 도로 여건이나 주변 경관과 동떨어진 20~40층 이상의 건축물들이 잇따라 허가가 나 준공됐거나 공사

가 진행 중이다.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건축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고층의 주거시설(오피스텔+아파트)을 잇따라 신축하는 분위기다.

동구 금남로 4가 옛 중앙교회에 들어서는 2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시작으로 공동 중앙초교 인근 22층, 금남로 4가 26층, 수기동 옛 명성예식장 26층 등 20층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동구 상업지역에서 잇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심의가 진행 중이다.

2015년까지 10층 규모였던 이들 주상복합아파트들은 2017년 들어 20층 이상이 들어서더니, 최근에는 30층에 근접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에만 충실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도시 공간 내 난개발, 경관 침

해, 주변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7년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제3차 권고안에서 “과도한 특례를 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의 부작용이 크며,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간선도로변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10m 안팎의 이면도로에 그동안에는 불가능했던 고층·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지정 고시안을 마련해 도시의 공공성 증진과 건축물의 적절한 높이 설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명당 20만원

지원 연령도 18세 미만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광주시는 2일 “아동양육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

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는 등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트라, 나주 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

10월 17일부터 11일간 열려

‘2019 국제농업박람회’ 비즈니스 파트너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참여한다.

재단법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은 코트라의 ‘국내 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 사업’에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는 국내 전시회 중 개최 규모·경쟁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해 바이어 유치 사업을 지원한다.

이전까지 산업전시회 위주로 지원했던 코트라는 농업을 주제로 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공동주관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은 국제농업박람회가 비즈니스박람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또 우수 해외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국내 농업의 수출 판로

개척은 물론 농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식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코트라와 공동주관으로 명실공히 산업계가 인정한 박람회로서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농업 활로를 확보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실용박람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11일간 나주 일원에서 열리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20개국 380개사가 참가한다.

올해로 4회째인 2019 국제농업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전 국내 농산업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27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바이어를 발굴, 상담회장을 마련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농업박람회 홈페이지(www.ia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혁신과 소통의 마이스 플랫폼’ 김대중컨벤션센터, 새비전 선포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일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자립경영 기반 달성을 위한 ‘10-10-10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비전은 ‘혁신과 소통의 글로벌 마이스(MICE) 플랫폼’으로 정했다.

민선 7기 시정가치인 혁신·소통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가 MICE 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 올해 추진할 ‘10-10-10 캠페인’은 매출과 순이익을 각각 10% 상승시키고, 관리비용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사적 수익구조 개선 운동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립경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올해 주요 경영혁신 과제로 재무혁신, 사업혁신, 조직운영 혁신, MICE 산업 생태계 구축 선도 등 4개 분야를 설정했다.

정종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새로 수립한 비전과 경영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제2전시장 신축을 포함한 당면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더불어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춘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해 광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일 오후 2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이 온라인 판매가 시작했다. 광주 동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막식 입장권을 구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대회 입장권 공식 판매 돌입

온라인 조기 구매 15% 할인
4월부터 철도역서도 판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입장권 판매가 시작했다.

2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 개최식을 포함한 6개 종목 90세션(경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식 개시했다.

조직위는 이날 온라인 입장권 판매 개시와 함께 1호 입장권 구매 행사도 개최했다.

입장권은 개회식과 6개 종목별 경기에 41만9000매(89억4000만원)가 발행되며, 발행량의 90%이상인 37만매(75억 원)를 목표로 국내에서 80%인 30만매, 해외에서 20%인 7만매를 판매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국민 참여 확대와 나눔과 배려 차원에서 할인대상의 폭을 넓혀 온라인 실

시간으로 판매되는 입장권 조기 구매 고객에게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주고 국가독립유공자, 5·18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1~6급), 65세 이상 경로자는 50% 할인, 청소년은 40% 할인적용을 받는다. 또 20인 이상 단체는 개회식 10%, 일반경기 30% 할인을 받아 대회를 관람할 수 있다.

조직위는 이날 공식 입장권 홈페이지를 오픈한 데 이어 오는 4월1일부터는 전국 주요 철도역 등에 현장판매소를 운영하고 대회기간 중에는 경기장 입구에 박스오피스를 설치,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명칭 공모

광주시는 2일 “지역 화폐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광주시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상징성·독창성·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심사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20만원, 광주사랑상 20명 각 5만원이다. 카드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기념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등 2가지로 발행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나 전통시장 등 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7일 운영 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명칭이 결정되면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선로

걱정없는 태양발전소 분양

건축물 150평+태양광 100Kw

초특가 2억5천만원

(한전불입금 별도)

- 1 강진군 대구면 12개소
- 2 보성군 노동면 23개소
- 3 보성군 득량면 ① 12개소
- 4 보성군 득량면 ② 8개소
- 5 보성군 보성읍 15개소
- 6 영광군 법성면 4개소

곤충사육장(건물 위)가중치 1.5배

- 땅+건물+태양발전+1층 임대비=년에 13개월 수입
- 농업회사법인 미래식량정원(주) 10년 임대수익 보장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수익	년 3,000만원~3,500만원
임대수익	년 250만원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 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